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 종지부



올들어 광주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을 16년만에 마무리짓고 건설공사에 돌입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9일 화순금호리조트에서 속의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정도 천년 관광객 5000만 시대 열어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무안공항이 명실상부한 서남권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시 결산

민선 6기가 끝나고 7기가 들어선 올해 광주시는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둘러싼 지난 16년간의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조건없이 이전하기로 전남도와 협의하면서 광주군공항 이전의 기반도 다졌다.

반면,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개발 과정에 심사 오류를 빚은 뒤 우선협상업체가 뒤바뀌는 등 행정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냈고 기대됐던 일자리 창출은 지속된 경기 침체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좋은 일자리'로 관심을 모은 광주형 일자리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도시철도 2호선 착공 반대를 주장했고, 선거 과정에 광주시장 후보군에게 도시철도 2호선 찬성 여부를 공개 질의했다.

이에 이음섭 광주시장은 취임 후 도시철도 2호선 건립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했고,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공론화 제도가 올해 시행됐다. 여론조사 등을 통해 꾸려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박2일 합숙토론 등 건설 찬반 공론화 속의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찬성이 78.6%로 반대(21.4%)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공론화는 광주에 '직접 민주주의'를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도 상생의 일

## 공론화 통해 건설 결정... 직접 민주주의 정착 계기 민간공항 2021년까지 무안공항 이전 협의 광주형일자리 모델 현대차 완성차 공장 해 넘겨

향으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조건 없이 옮기기로 협의했다. 민선 7기 들어 새롭게 진용을 갖춘 시도상생협회를 통해 광주시는 광주 민간공항을 오는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무안공항이 지난 2007년 개항한 지 11년 만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발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은 무안공항 활성화에 정진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 민간공항이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돼 제주와 김포노선이 옮겨지면 무안공항 이용객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이 확정되면서 광주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공항 이전도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전남 무안·신안 등 4개 군과 접촉에 나섰다. 하지만 4개 지자체 중 2곳은 접촉조차 할 수 없었으며,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인 무안군은 반발이 거세다. 국방부가 애초 적정성 검토를 벌인 뒤 해당 지자체장 면담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12월 중 예비 이전후보지 2곳 정도를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업계 평균 임금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대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

리 추진되는 현대차 광주 완성차 공장 공장 설립은 정부로부터 모범 사례로 꼽혔지만 올해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공식적으로 2차례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매년 광주시, 현대차, 노동계 등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광주행을 취소해야 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 모델로 국내 정·관·계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사업이 최종 타결 일보 직전에서 사동을 꺼야 했다. 현대차 노조와 민노총의 반발마저 거세지면서 협상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또 광주시는 총체적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민간공원 2단계사업 6개 지구 가운데 2개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교체하고, 해당 공무원들을 대기발령하는 등 논란을 키웠다. 애초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던 일부 업체와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등 내년에도 민간공원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자리 시장'을 내세운 이음섭 시장은 임기 내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로드맵을 내놨지만 광주지역의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가시적인 일자리 성과를 얻었다는 호평을 받은 한 해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 결산

김영록 전남지사는 6·13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전남도정에 입성했다. 민선 도지사 가운데 도청 근무 경력을 가진 정통 행정관료 출신은 김지사가 처음이다. 그만큼 전남도 사정과 해야 할 일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 때문인지 지난 6개월간 업무 수행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지지율도 취임 이후 5개월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브랜드 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전남도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내년 국비 예산을 6조8104억원으로 확보했다. 올해(6조16억원)보다 8088억원(13.5%) 늘어난 것으로 3년 연속 6조원대를 달성했고, 2020년 7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숙원사업이었던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비 10억원이 반영되면서 88년만에 철도 현대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비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서 무안공항이 대표적 서남권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잉747기 등 미주지역을 취항할 수 있는 항공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남권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인천-제주공항의 대체공항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

## 정부 공모사업 성과·국제수목비엔날레 합격점 군공항 이전 등 지역현안 소극 대처 아쉬워 청렴도 4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특단 대책 필요

다.

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 축소 방침에도 전남도는 내년도 SOC 예산 1조2121억원을 확보하면서 여수세계박람회(2012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성장사업비도 612억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깔았다는 평가다.

전담 팀까지 꾸려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 공모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이 대표적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전체 70곳 중 전남은 26곳이 포함됐다. 사업대상지별로 앞으로 2년간 50억원에서 143억원 등 총 2312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8곳 선정됐다. 국비 800억원 외에도 LH 등 공기업이 1217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802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한 '전라도 방문의 해' 성과도 결실을 맺었다.

전남 관광객 5000만 시대를 열었고, 침체기를 보냈던 무안국제공항도 사상 첫 이용객 50만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올해 목표와 진도 일대에서 첫 선을 보인 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예술성과 대중

성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든 평가다. 전통 회화를 테마로 국내 최초로 열린 국제수목비엔날레는 2개월 동안 관람객 29만 여명이 발걸음을 했고, 전남도는 국제수목비엔날레를 올해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및 전남·광주·경남·부산 '남해안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도지사-시장-군수 상생발전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방분권시대 광역 상생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광주·전남 민강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나주혁신도시 협력기금 조성과 한전공대 부지 문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등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여기에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김 지사가 공언했던 '청렴도 3위 도약'은 빈말이 됐다. 특히 외부청렴도 점수가 낮아진 것은 일부 직원들의 금품·향응·편의 등 부패행위가 여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임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행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공 | 기보종합건설